

예수승천 대축일
(홍보의 날)

기도서 305면 (C해)

제1독서 : 사도	1, 1-11
제2독서 : 에페	1, 17-23
복음 : 루가	24, 46-53

숲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아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루가 24, 50).

□ 강론

홍보수단을

이용하자

오늘은 예수승천대축일이며 홍보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즉 세상 끝날까지 나의 가르침을 전하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는 오늘을 홍보주일로 정했습니다.

전 교황이셨던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서는 「현대의 복음 선교」라는 사도적 권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의 특징은 사회 홍보수단의 발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복음을 알리고 교리를 가르치고 혹은 신앙을 깊게 하는데 홍보수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홍보수단에 의해서 하느님 말씀이 범위에 한정없이 전달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인간의 지성이 날로 발전해가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힘있는 수단을 교회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하느님 앞에 죄송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는지 20주년이 되는 작년에 세계의 주교님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홍보수단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번 홍보주일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하셨는데 그 메시지는 “그리스도교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사회홍보”입니다. 이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교적인 여론을 형성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매일같이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월간잡지 등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읽는 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과연 그것들이 그리스도교적인 것들인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즉시 “아닙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사회에서 참으로 크라스찬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침부터 밤중까지 신문, T·V, 라디오, 잡지에서는 경제적으로 잘사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목표인양 경제성장 운운하며 떠돌아듭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홍보매체는 폭탄보다 더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해서 계속 어떤 사상을 쏘아대면 아무리 단단한 머리도 구멍이 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수단인 홍보매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교황님 말씀대로 하느님 앞에 죄송스러울 뿐 아니라 책임추궁을 당할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한국 교회안에 막강한 힘을 갖는 T·V나 라디오 방송국은 없더라도 그래도 신자들을 위한 신문과 월간지를 또 각 종류의 단행본들 녹음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영화필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매체들을 얼마나 애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바오로 여자수도회 제공)



1천2백여발의 최루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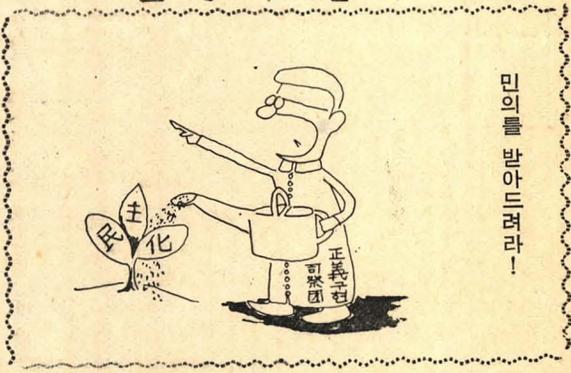
어느날 아침, 스무명도 넘는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금방 도착한 버스에 올라타라고 한참 법석을 떠는데, 또 하나의 버스가 왔다. 아직 오르지 못한 학생들이 그 버스 쪽으로 물리는 순간 그 차는 서지도 않고 그냥 내뺐다.

문제는 한 대의 버스가 제 시간을 어겨서 그런 혼란이 오고 만 것이다. 시간을 못(안)지킨 버스에게도 이유(핑계)는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운전기사가 아침을 먹느라고 늦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자기 편리(이익)를 위한 다른 이유때문에 승객들 따위는 우습게 보고 그랬는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하나는, 아침부터 어린 학생들에게서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갔고 혼란을 주었다는 것이다.

4월 29일 연세대에서는 「전국 반제 반파쇼 민족 민주 투쟁 학생연맹 창립 결성대회」가 있었다. 이날 시위에 나선 학생들은 8백여명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1천여명의 진경이 동원되었다. 경찰의 학교 진입을 막기 위해 3백여명의 학생들은 자폭 30여개와 화염병 3백여개, 그리고 돌을 던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경찰이 쏘아낸 최루탄은 1천2백여발이었다고 신문은 적고 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1천2백여발의 최루탄 값을 알고 싶기도 하지만, 학생 숫자보다 더 많은 최루탄의 수에 놀랄 뿐이다. 민주화를 외치던 학생들이 왜 그렇게도 그 모습을 달리했는지에 대해 서글픈 것이다. 그리고 5월이면 생각나는 광주사태와 더불어 지난 주말의 인천사건에 가슴이 미어지게 아파오는 것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아무 말없이 조용하게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뒷쪽부터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면, 조용히 옷을 벗고 갈아입을 채비를 해야 할 때이다.

숲정이 산책



□성소주일 백일장 당선작



서 장 미(마리아 막달레나)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 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택한 동기와, 그 성취를 위해 그 자신이 어떤 것을 했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3년전부터 우리집에는 하느님의 일꾼이 되기위해 신학교에 간 학사님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를 보며, "어제일 같았는데"하며 웃죠. 그래요, 어제의 오빠는 참 작았는데 방학해서 올 때마다 참으로 하느님 앞의 변모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라고 느낍니다.

오빠는 시를 씁니다. "이 경우"신부님처럼 시대의 아픔에 호소하는 그런 시인이고파 시를 씁니다. 오빠가 한 학년씩 그 단계를 걸어가갈 때마다 오빠의 시는 더 큰 울음으로 옵니다. 하지만 그분 앞에서 절망은 결코 존재치 않습니다. 그 작은 시인은 희망을 줍니다. 오빠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꿈"입니다. 전 세대가 꿈을 잃어버렸다 해서 우리 세대까지도 꿈을 잃어버린다면 살아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의 그 고통의 눈물은 정말 부활의 죽음이 아닌 암흑의 죽음속에서 부활이란 단어를 잇는 서늘한 일입니다. 꿈은 부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음악가가 미술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성직자 수도자입니다. 그들중 사제는 곧 예수님의 분신입니다. 아무리 꿈이 부

활되길 원해도 언제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자기가 아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줍니다. 사제에게 사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얻어야 하는 고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고통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알 때 그때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태여 내가 사제들의 얘기를 하지 않는 않지만 우리 오빠를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달에는 오빠가 독서직을 받습니다. 오빠는 죽는 연습을 합니다. 죽는 연습! 그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오빠의 꿈이 부활할 수 있도록 아니 모든 학사님과 신부님의 꿈이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하느님께 작은 두 손으로 기도하렵니다. 세상이 정말 하늘 나라를 닮은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2 육복성당)

성소주일 백일장 수상자 발표

- * 중등부 : 특선-황은석(중앙), 우수상-김정수(문율), 장려상-최은숙(신동), 가작-이은희(노송)·박승미(요촌)
- * 고등부 : 특선-서장미(육봉), 우수상-송근화(노송), 장려상-조수정(순창), 가작-장순희(고산)·문미숙(순창) ※ 시상식은 5월 성소자 모임중에 있음

□성서교실 ④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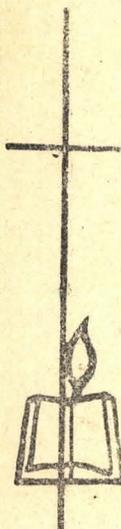
(루가 24 : 51)

예수의 생애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죽음 후에 그의 부활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생애는 부활로도 끝나지 않았다. 부활 후에 그의 승천이 있었다. 부활 후에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놀랄만한 사실이 있었다. 이것에 관한 직접적인 기사는 복음서에서는 루가 24장 50~53절에만 나온다.

예수는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셨다. 「떠났다」는 말은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 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루가 24 : 31)는 말처럼, 돌연 아니면 점점 그분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또는 행전에 나오는데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분명해진다. 문자적으로 보면, 기적적으로 그분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봄이 온당할 것이다. 어떻게 이것은 예수와 제자들과의 지상(地上)에 있어서의 마지막 결별(訣別)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의미를 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구약에도 이런 예(例)가 나온다. 예녹(창세 5장), 엘리야(왕하 2장)의 예(例)가 그것이다. 루가가 여기서 말하는 승천은 9장51절에 나오는 「하늘에 오르실 날」의 실현이라고 봄이 보통의 해석이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한 「승천」은 행전에 나오는 「승천」과는 다른 의미인 것으로 부활과 동의의(同意義)인 것이다. 부활과 승천은 같은 것의 두 표현이다. 부활을 「떠나는 승천」으로 생각한 것은 후에 발달된 것이라고 한다.

결국 유언이 유언이 아니고, 재래(再來)의 약속이며, 이별이 이별이 아니고, 형(形)을 달리하는 보다 친밀하고, 이제는 그분과 나와의 교제가 아닌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안에 사는, 「들」이 아니고, 「하나」이면서 「들」인 생활에의 비약, 그것이 「승천」인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요한 16 : 7).



* 혼수(회갑)웃감
*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튼지

도매상

서울주단

☎ ③0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③ 3651 · 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축농증 · 각종 신경통 ·
간장병 등

전 강 상 담

<봉침 치료전문>
전주시 전동
(구 성모병원 3층309호)

☎ 82-3925
82-3105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소흥영외과의원

외과전문외
소 흥 영(요 한)
유 인 경(유리안나)
전주시 서노송동 602-21
(전주시청 앞)

병원 ③ 3668
자택 ③ 8120



교 구 소 식

- ☆ **축! 견진** : 중앙천주교회, 18일 10시30분, 주례-박정일 주교님
- 1. **광주-전주교구 성직자 체육대회** : 광주교구 우승, 협조와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
- 2. **이리 기독 교방송 가톨릭시간** : 밤 12시30분, 금주 방송담당-최상범 신부님
- 3. **섬미후원회** : 12일 10시30분, 장소-사회복지회관
- 4. **교리교사 교구 임원모임** : 12일 오후 6시, 장소-교리교사연합회 사무실
- 5. **5월 성소자모임** : 11일 오후 2시, 대상-중·고·대·일반, 장소-센타 회의실
- 6. **자연법적 가족계획 사용자를 위한 교육** : 13일 오전 10시~12시
장소-가톨릭센타 2층 행복한 가정운동 상담실 (3-5098)
- 7. **축! 제2지구 정의평화위원회 결성** : 86년 4월 30일
- 8. **노동자탄압 보고대회 및 기도회** : 5월 12일 저녁 7시30분, 이리 주현동천주교회
- 9. **심성개발** : 인성훈련, 인간관계교육, 일시-17일 오후 3시~18일, 장소-가톨릭센타 회의실, 참가비-7천원, 접수-13일까지, 선착순 40명 교육국으로 (5-0041)
- 10. **제3차 레크레이션 지도자강습** : 캠프(Camp) 레크레이션, 일시-24일·25일·31일·6월 14일·21일, 매일 오후 5시~7시, 장소-가톨릭센타 강당, 참가비-8천원, 접수-21일까지 교육국 (5-0041)
- 11. **축! 승격, 전주교구 파티마의모후 레지아 기념행사** : 18일 14시~17시
장소-가톨릭센타, 대상-지도신부님·수녀님·영의회 간부님
- 12. **전주교구 성령쇄신 봉사자 단식 철야기도회 개최** : 17일 23시~18일 오후 5시
장소-효자동천주교회
- ※ **축! 영명** : 성 마리아 (14일) 범석규, 이성우 신부님 축하합니다

제 6 주 기 광 주 사 태 추 모 기 도 회

일시 : 5월 14일 (수요일) 오후 8시 장소 : 덕진천주교회
강사 : 정영달 신부 (광주대교구 정영위원장)

※ 가정기도 독서 : 시편 117장 복음 : 요한 15 : 12-17

잡 간!

조용히 연락을...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걸지도 못하고 손놀림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이젠 제법 장고와 팽과리를 치고 북을 치며 기뻐합니다. 어린 장애자들이 농악을 연주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농악기구가 이제는 낡고 달아서 새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농악기구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조용히 연락주십시오. 다만 하느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연락처 : 전주 5-0041 교구청 홍보국)

새로 단장된 동막공소-

신래인 본당의 동막공소 축성식이 지난 2일날 있었다. 낡은 건물울 허물고 개축공사가 시작할지 50여일 만에 축성을 보게 된 것이다. 공소신자 모두가 내 집짓는 것이 상으로 적극 협동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공소회장님의 말씀. 아름답게 단장된 성전에서 주님께 찬미와 감사, 용서와 탄원의 기도를 바치는 동막공소 신자들에게 축하드린다.

그말도 이야기도 비록 소리없어도

지난 4일~5일 양일간에 걸쳐 베소라 성서반 피정이 있었다. 5년전부터 계속 성서공부를 해오던 이들이 말씀이 각자 안에서 얼마나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숙고하는 좋은 기회였었다.

신·구교를 초월하여 가톨릭센타 대강당을 뻗뻗하게 채운 많은 이들이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체험담 발표는 한마디로 복음의 현장이었다고- 그말도 이야기도 비록 소리없어도 성서에서 힘을 얻고 사는 이들은 계속 늘어나고 변화될 것이다. 베소라 성서 피정에 축하드리며 모든이들에게 성서읽기를 권한다.

요심이 (666) 김병오



금성가스보일러 전 북 총 판

(서독 수입 완제품)
울커스·가스보일러·온수기·각종 설비공사
전주 흥국생명빌딩 옆
☎ 4-0532
홍성규 (스떼파노)
강경옥 (아네스)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대여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① 2496 ② 8653

미성 (MISSUNG HANDBAG)
소주 코아백화점 1층
미성핸드백 대리점
*취급품목
핸드백·여행용가방·007
가방·지갑
☎ 교환 72-0551-5
72-0561-5
김혜겸 (글라라)

김생기
산부인과
전문의 김바오로
신실비아
전주 ☎ 6-6077
(조흥은행앞 윤의과 내)

부동산 투자 상담 (토지, 임야, 상가, 주택, APT 등)
* 컴퓨터 정보처리 (전북 최초)
* 2,000만원 영업보증제 실시

호남부동산중개유한회사

오재천 (안드레아)
(원평성당 사무회장)
전주 ☎ 75-0247
(관동로 민정회관 옆 2층)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수.사 2-7032 아파트 75-6389

주임신부 김용태 보좌신부 김기곤 사목회장 노인석

- 1. 금주는 증거주간입니다. 순교성인들을 본받아 사랑과 시간의 나눔, 물질의 나눔 등으로 증거하는 생활을 합시다
2. 푸리아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각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3. 민주화를 위한 개헌서명 합시다: 서명운동은 국민의 기본권, 모두 주권행사에 참여합시다
4. 주일헌금 배가운동: 교구설정 5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주일헌금 배가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5. 교직자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초·중·고·대학 선생님들 빠짐없이 참석바람
6. 공소 순회미사: 17일 저녁 8시, 신교리공소
7. 부녀회 운동회: 13일 어머니미사 후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 금주전례: 해설-박종구, 독서및 봉헌-김환창 부부 신자기도-최봉규 부부, 촛불봉헌-배기창 부부 차주전례: 해설-전병구, 독서및 봉헌-김용기 부부 신자기도-한갑용 부부, 촛불봉헌-김진석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01,400원 교무금: 222,300원 신축금: 44,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사무실 2-5238 수녀원

주임신부 김기수 사목회장 김성원

- 1. 예수승천 야외미사: 오늘 10시30분, 다가공원 광장 우천시 본당에서, 전신자 참례, 도시락 지참
2. 복자부녀회: 17일 오전 10시
3. 중·고생 소풍: 18일 오전 9시 학생미사 후 장소-구이저수지
4. 푸리아 회합: 오늘 오후
5. 성우회: 오늘 야외미사 후
6. 자모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7. 전입자: 박영숙·손인숙·이복림·박봉규·임복진 사무실에 면담바랍니다
8. 영명축일: 계시관 참조, 본인의 축일을 찾으십시오
9. 대학생 정기총회: 다음주일 오후 5시
10. 사순절 저금통: 금주입금-7개 27,375원 누계-212개 1,118,776원
11. 금주 성당청소: 월-사랑하오신 어머니pr 토-순결하신 어머니pr 차주 성당청소: 월-다위의 탐pr, 토-갯별pr
12. 금주전례: 해설-정운주, 독서-①최운석 ②강상자 봉헌-강만춘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최창기 ②김성원 봉헌-라병규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70,960원 교무금: 552,20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사무실

주임신부 이삼섭 사목회장 이정우

- 1. 5월은 성모성월: 매주 토요일 저녁미사 후 성모상에서 묵주기도 있음
2. 성모의 밤: 31일, 구역별, 단체별, 꽃봉헌 준비해 주세요
3. 우정의날 구역형제회: 이달은 쉽니다
4. 순정이음인: 김분임-2주, 박복동-1주, 유춘근-1주 감사합니다
5. 본당 휴일: 매주 월요일은 본당 및 실험업무 쉽니다
6. 신규 전화번호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7. 가톨릭 성가집: 사무실에서 구입하세요

- 8. 예비자교리: 공식미사 후 강당에서 많이 인도해 주세요
9. 개헌서명운동: 계속 서명받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24,250원 교무금: 217,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사무실 수녀원 2-2276

주임신부 김덕창 사목회장 김낙균

- 1. 제2성당 주일미사: 오전 9시, 오후 2시
2. 제2성당 주일학교: 일요일 오후 1시에 어린이교리가 있으니 부모님의 많은 협조바람-어린이 미사책
3. 반장님 월례회: 공식미사 후
4. 프란치스코 형제회: 일요일 오후 1시
5. 성심회: 13일 오후 2시
6. 유아세례식: 매월 세째주 목요일 오후 2시
7. 예비자교리: 학생-토요일 오후 6시 일반-일요일 공식미사 후 화요일 오후 7시30분
8. 레지오 옥외행사: 장소-충남 영بری 연풍성지 일시-6월 17일 오전 6시30분 성당에서 출발, 시찬 영수 바랍, 준비물-도시락·묵주 지참 대상-레지오단원 및 협조단원, 평신자
9. 오늘 봉헌: 제2성당-박영식부부, 본당-강기호부부 차주 봉헌: 제2성당-박태호부부, 본당-남정호부부
10. 차주전례 제2성당: 해설-문치구, 독서-①박태호 ②김화영 본당 아침미사: 해설-최창림, 독서-①김배근 ②차상열 공식미사: 해설-고복근·고정수 독서-①남정호 ②김봉환 저녁미사: 해설-유명환, 독서-①진경선 ②유이근
□ 지난주 봉헌금: 제2성당-116,680원, 본당-271,025원, 제-387,705원 교무금: 179,000원 미수금: 194,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사무실 2-3222 수녀원 2-8347

주임신부 김치삼 보좌신부 최상범 사목회장 김병오

- 1. 자모회: 공식미사 후
2. 성화회·피미시움: 다음주
3. 소년푸리아: 오늘 오후 1시30분
4. 아치에스행사: 24일 오후 2시 전동본당 소속 전레지오단원
5. 젊은이 단합대회 및 야외미사(모악산 등반): 16일
6. 예비자교리반 안내 금요일(일반)-오후 8시 토요일(중·고생)-오후 5시 일요일(일반)-오전 11시
7. 축일: 18일-스피릿다(유치원 수녀님)
□ 지난주 봉헌금: 918,210원 교무금: 361,0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사무실 2-0915 수녀원 2-4804

주임신부 박종신 사목회장 이경선

- 1. 본당의날 행사 ①18일 오전 11시 ②장소-효자동우체국 뒷산 ③가족별, 단체별 성가경연대회, 보물찾기, 각종 게임 있음 ④당일-아침 9시, 저녁 7시30분 미사없음 ⑤우천시 연기
2. 본당신부 사목방문: 13일 오전 10시 3단지 서편 3반
3. 주부 성서대학: 목시록② 14일 오전 10시
4. 모임: 금주-클라라회, 차주-성모회
□ 지난주 봉헌금: 511,870원 교무금: 716,000원